

1908년 東萊府 東下面 거주민의 일상적 삶과 집단적 정체성

— 隆熙 2년 東萊府 東下面 戶籍을 바탕으로 —

김 현 진*

| 목 차 |

- I. 머리말
- II. 호주 분석
- III. 가족 분석
- IV. 맺음말

| 국문초록 |

본 연구는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적에 기재된 392명의 개인정보를 통계 분석하고, 그 내용을 동래부 동하면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거주민의 집단적 생활방식으로 이해하였다. 이를 통해서 그 당시 해당 지역민의 공동체적 정체성과 그에 따른 삶의 선택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당시 동래부 동하면은 활발한 인구가동과 집중화 현상이 나타나지 않는 주변 지역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주민의 거주 성격과 존재 방식에 영향을 주어 동하면 거주민은 평균적으로 40대 이후 연령대에서 높게

* 인하대학교 한국학연구소 연구교수 / khj010600@gmail.com

나타났으며 대부분 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하였고, 특정 주요 가문이 토착화되어 뚜렷한 지배세력으로 나타나는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들의 경제 수준은 평균적으로 초가 2~3칸의 가택을 소유할 만큼, 거주민 사이에서 부의 차이 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회·경제적 수준을 보였다.

다음으로 동래부 동하면 주민들의 거주 양상을 좀 더 다각적으로 접근하기 위해서 호주 개인 정보를 동거친속과 결합시켜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살펴보았다. 당시 동래부 동하면 가족은 4인 가족이 가장 전형적인 규모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의 가족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그들의 가족구성은 당시 도시 가족과 비교해서 동거친속 유형이 적게 나타나는 제한성과 직계가족 중심의 가족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동하면 가족이 부계중심의 전통적 가족관계를 중시하고 있었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주제어 : 隆熙2년(1908) · 戶籍 · 東萊府 東下面 · 戶主 · 가족

I. 머리말

초고층 주상복합건물과 다양한 테크노 파크사업 그리고 해변에서 수영강변에 이르는 자연경관, 현재의 해운대구는 주거와 산업 그리고 관광을 아우르며 최첨단 복합 도시로 성장·발전을 지속하고 있는 대표적 지역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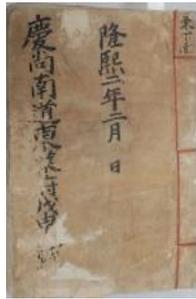
해운대구의 도시 성장과 발전은 자연적 환경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적 요소 그리고 그들의 네트워크 형성도 중요한 원인이 되었다. 해운대구는 다른 부산 지역과 마찬가지로, 근현대시기 일제강점기와 6·25 전쟁 등 시대적 격동 및 변화 속에서 생존과 생계를 위해서 다양한 이주자들이 유입되어 주민구성의 다양성을 발생시켰으며, 새로운 이주자들은 상호간에 집단적 문화와 공동체 관계를 강화하였다. 이러한 다양한 인구 유입과 그들에 의해 재확립된 지역 문화는 현재 해운대구라는 지역

사회를 발전시키는 인적 토대가 되었다.)¹⁾

본 연구는 현재 해운대구 지역과 주민의 정체성이 어떤 변화를 경험했는지를 과거 거주민의 존재양상과 특성 속에서 살펴보려 한다. 그 첫 단계로써 외부로부터 인구유입이 본격화되기 이전 시기를 대상으로 현재 해운대구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 구성과 그들의 일상적 삶에 나타나는 집단성에 주목하였으며, 이러한 연구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1908년(隆熙 2) 東萊府 東下面 호적을 중심자료로 활용하였다.



〈그림 1〉 東萊府 裁松洞·左洞·中洞·佑洞 위치



〈사진 1〉 1908년 東萊府戶籍



〈사진 2〉 1908년 東萊府戶籍

1896년에 이르러 「戶口調査規則」·「戶口調査細則」 반포²⁾로 인해서 새로운 호적제도가 시작되었으며, 새로운 호적제도는 이전 조선후기 호적과 비교했을 때 작성방식과 내용에서 많은 차이를 포함하고 있었다. 1896년 이후 작성된 호적은 조선후기 호적에 기재되었던 호주의 성명, 이름, 姓·本貫, 연령과 四祖 내용 이외에, 호주의 前거주지와 이주시기, 가택의 소유 여부와 규모, 寄口·雇傭人의 동거여부 등이 새롭게 추가

1) 부산광역시편찬위원회, 『釜山市史』 1, 제6장 개항기의 부산·제7장 일제침략하의 부산·제8장 부산시 시대, 1989; 『부산시사』 3, 제4장 인구, 1991, 참조함.

2) 「勅令六十一號」, 『官報』 第四百二十號, 建陽元年 九月四日. 「內部令第八號」, 『官報』 第四百二十三號, 建陽元年 九月八日.

되었고, 동거친속에 해당되는 가족구성원 정보가 이전 시기 호적에 비해서 충실히 기재되는 등, 당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실재적인 생활양식과 삶의 모습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였다.

본 연구에서 활용하려는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적은 1896년 새로운 호적법에 의해서 작성된 것으로, 현재 해운대구의 中洞과 佐洞, 佑洞 그리고 栽松洞에 거주했던 392명의 개인정보가 다양하게 기재되었다. 지금까지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적을 활용한 기존 연구는 동래부 동하면 4지역(재송동·좌동·중동·우동) 거주민의 성·본관과 직업을 분석하여 각 지역별 특정 성씨 집단의 존재 양상 및 거주 특징에 대해 살펴거나,³⁾ 동하면 4개 지역 거주민의 가택 형태와 규모를 대상으로 당시 동하면 주민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파악하려 했던 연구⁴⁾ 등이 있다. 기존 연구는 호적에 기재된 특정 정보를 시대적 상황과 관련하여 상세히 분석하고, 분석 내용을 당시 동하면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거주 양상과 관련지어 동래부 동하면의 지역적 성격 그리고 거주민의 특징에 대해 실증적인 연구 성과를 이루었다.

본 연구는 기존연구 성과에서 활용한 호적의 일부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호적에 기재된 전체 내용을 분석 대상으로 할 것이다. 이를 통해서 동래부 동하면 거주민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성과 보편성을 더욱 확대하여 그 특징과 성격을 광범위하게 살펴보고, 그 결과를 그들의 일상적 생활과 집단적 정체성으로 파악할 것이다. 다만 본 연구의 주요자료인 호적은 호수와 인구수의 누락 가능성 등 자료로서의 한계를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해당 호적에 대한 통계적 결과로써 과거 사실에 대한 정확성을 주장하기 보다는 사실에 대한 경향성을 살펴보려 한다.

3) 이훈상, 민선희, 『19세기 東萊府 東下面 못골의 東萊 鄭氏와 이들의 고문서』, 『港都釜山』 12, 1995.

4) 장경준, 『18~20세기 초 동래지역의 인구와 주거양태』, 『역사와 세계』 37, 2010.

본고의 연구방법과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현재 해운대구 주민들의 생활방식과 사회적 정체성이 과거로부터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서 현재 해운대구의 지역 특성과 거주민 성격을 과거의 유사성에서 찾기 보다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운대구의 지역·인적 변화 과정을 살펴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에 그 첫 단계로 과거 해운대구 지역 거주민 정보가 집단적으로 남아 있는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적을 적극 활용하였다.

둘째,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적에 기재된 392명 호주에 대한 모든 개인정보를 추적함에 있어서 다각적인 통계분석 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통계분석을 주요 연구방법으로 활용한 이유는 392명 호주의 삶에 나타나는 다양한 보편성과 특수성 문제를 보다 효과적으로 파악하기 위함이다. 본 연구의 통계화 과정은 내용별 그리고 지역별로 세분하여 분석할 것이며, 통계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동하면 거주민의 특성을 좀 더 뚜렷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1903년 漢城府 지역 그리고 1898년 仁川港 거주민 양상과 비교 분석도 시도할 것이다. 특정 지역 거주민의 양상은 해당 지역의 지리적 특성과 매우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이에 당시 도시적 성격이 가장 강하게 나타나고 있었던 한성부 그리고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유사성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도시로 발전 초기 단계에 있었던 인천 沓洞·外洞과 비교 분석함으로써, 1908년 동하면 거주민의 특성을 지역적 성격과 연관 지어 좀 더 구체적으로 파악할 것이다.

셋째, 연구내용은 호적에 기재된 모든 정보를 활용하여 먼저 호주의 개인적 특성을 분석할 것이며, 그 다음으로 호주의 개인적 특성을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동하면 거주민의 특성을 다각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호주의 개인적 내용은 연령, 성·본관 그리고 직업과 가택 규모를 중심으로 동하면의 지역적 특성과 관련하여 그들의 사회경제적 성격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호주의 개인정보를 동거친속과 결합하고 가족으로

재구성하여 동하면의 가족 규모와 동거친속 유형, 가족 유형 등을 분석할 것이며 이를 통해서 동하면 가족의 존재양상과 특성도 함께 살펴볼 것이다.

II. 호주 분석

1908년(隆熙 2) 동래부 동하면 호적에 기재된 전체 호수는 392호이며, 栽松洞, 佑洞, 左洞 그리고 中洞이 포함되어 있었다.⁵⁾ 전체 호수를 살펴보면, 해당 4개 동 중에서 중동의 호수가 전체 33.9%로 가장 높았고 그 다음으로 우동, 좌동, 재송동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표 1>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와 인구

지역		전체 호수	비율	남녀 인원수·비율				
				남	%	녀	%	
東萊府	東下面	栽松洞	68	17.4	174	50.3	172	49.7
		佑洞 ⁶⁾	110	28.0	278	53.8	239	46.2
		左洞	81	20.7	169	53.7	146	46.3
		中洞	133	33.9	311	53.3	272	46.7
합		392	100	932	52.9	829	47.1	

5) 당시의 東萊府 東下面은 현재 해운대구의 대부분 지역을 포함하고 있다. 동래부 동하면은 『동래부지』(1470년)에 의하면 7개면 82리 19동의 체제에서 東面에 포함되었고, 그 이후에 9면 체제(『동래부사례』, 1868)와 8면 체제(『동래부읍지』, 1899)로 변화하였다. 그리고 12면 체제(『경상도동래군가호안』, 1904)에 들어서 東面이 東上面과 東下面으로 분리되었으며 동하면에 재송동, 우동, 중동, 좌동이 포함되었다. 이후 11면 체제(『동래군지』, 1937)로 변화하면서 南面으로 소속되었다가 1953년 해운대 출장소가 설치되었고 1980년에 이르러 해운대구로 승격되었다(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地名總覽』 제3권·남구·북구·해운대구편, 1997 참조). 동하면은 동래부의 하부 행정 단위 중에서도 작은 행정구역에 속하였으며 바다에 인접한 주변부 지역으로서 전통적인 중심 지역은 아니었다(이훈상, 민선희, 앞의 논문, 1995: 299쪽).

6) 해당 지역 표기에서 107호는 佑洞으로, 3호는 右洞으로 기재하였다. 佑洞은 원래 오른쪽 마을이라는 右洞이 좋은 뜻을 가지는 한자 또는 글자로 바뀌면서 佑洞으로 바뀌게

전체 통·호수 체제를 보면, 해당 4개 지역의 전체 39통 중, 마지막 39통 두 호(11·12호)에서 零戶가 나타난 사실을 제외하고 전체 호수에서 缺戶와 加戶는 보이지 않았다. 당시 호적에서 나타나고 있었던 곁호와 가호는 그 지역 거주민의 전출입 이동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며, 지역적 특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당시 호적에서 곁호와 가호는 도시적 성격이 강한 일부 상업·중심 지역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⁷⁾ 그러한 점에서 동하면 4개 지역에서 곁호와 가호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은, 해당 지역에서 호주의 생계와 직업 등을 이유로 활발한 인구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다고 추측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호적에서 인구 집중화 현상으로 나타났던 반 칸 가택⁸⁾ 역시도 동하면 전체 호에서 존재하지 않았다. 결국 당시 동하면 지역은 인구 이동과 인구집중화 현상을 보이던 상업·도시 지역과 다른 지역적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호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전체 호에 기재된 남녀 인원을 분석해 보았을 때, 남녀의 성비가 약 53:47로 매우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⁹⁾ 당시 호적은 전국 내 호수와 인구를 정확히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새롭게 개편·시행되었으나, 실제로 지역과 시기에 따라서 호수와 호적의 내용에서 누락현상이 나타나고 있었다. 그 중에서 가장

되었다고 보고 있다(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앞의 책, 1997, 234쪽). 左洞도 佑洞과 마찬가지로 左洞으로 바뀌게 되는데, 해당 호적에서는 아직 81호 모두 左洞으로 기재하였다.

- 7) 김현진, 『19세기말 仁川港 거주민 양상과 대민통치방식-光武 2년(1898) 仁川港 沓洞·外洞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2014;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 - 光武 7년 漢城府 戶籍을 중심으로 -』, 『한국학연구』 37, 2015.
- 8) 반 칸 가택은 가택 규모 항목에 ○칸 半 등으로 기재한 경우이다. 주로 漢城府의 城內 지역과 상업 활동이 활발했던 仁川港 지역 등에서 다수 나타나고 있었다.(김현진, 위의 논문, 2014; 위의 논문, 2015).
- 9) 해당 성비는 호주+동거친속 이외에 각 호에 기재된 寄口·雇傭 男女數를 합친 것이며 호적에서 남녀인구가 오기 된 부분은 수정하여 통계하였다.

대표적인 누락이 여성에 대한 기재 내용이며, 주로 호주의 女 내용이 생략되거나 누락되었다.¹⁰⁾ 그러한 점에서 당시 동하면 지역에서 남녀의 성비가 매우 균등하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매우 특이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며, 주요 원인으로 호주의 女가 동거친속의 구성원으로 비교적 충실하게 기재되었기 때문이었다.

호의 구성에서 나타나는 또 다른 특징으로, 비교적 다수의 여성이 호주로 존재하여 392명의 전체 호주 중에서 여성 호주가 18명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 호주가 전체 호주 중에서 4.9%에 지나지 않지만, 당시 호적에 기재된 지역별 여성 호주 비율로 볼 때 결코 낮은 수치가 아니다. 당시 호적에서 여성 호주가 낮게 나타난 원인은 호주가 될 수 있는 가족 구성원 중에서 妻를 제외시켰기 때문이었다.¹¹⁾ 그 당시 호적 중에서 여성 호주가 높게 나타난 지역으로 한성부가 대표적인데, 1903년 한성부 호적에 기재된 전체 4,543명의 호주 중에서 여성 호주는 176명으로 3.9%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에 거주했던 여성 호주가 한성부 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여성 호주가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 혹은 상업 지역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에서¹²⁾,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동떨어진 동하면에서 여성 호주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사실은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다음으로 동래부 동하면 전체 호에서 보이는 호주의 특성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당시 동하면에 거주하였던 392명의 개인정보를

10) 1899년(光武 3年) 경상북도 『安東郡南先面戶籍』의 경우에, 전체 358명 호주의 동거친속에서 호주 女에 대한 기록이 전부 누락되었으며, 대부분의 당시 호적에서 호주의子和 비교해서 호주의 女는 이름과 나이 등을 누락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11) ‘戶主가身故호는時는原籍을該當管廳에照憑호고其子孫兄弟間에新代호는戶主姓名으로 다시改籍함’(『戶口調査細則』第8條, 『官報』第四百二十三號, 建陽元年九月八日).

12) 김현진,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光武 7年 漢城府戶籍에 기재된 여성호주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8, 108~109쪽.

분석 시도하였다. 호주의 개인정보는 각 호에 기재된 호주의 연령, 직업, 성·본관, 가택 등 호주의 경제·사회적 상황을 포함하는 내용이다. 392명 호주의 개인정보를 통계 분석함으로써 당시 동하면 거주민의 특정 생활방식과 거주 특성을 살펴보려는 목적이다.

<표 2>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주 연령

지역	호주 연령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
栽松洞	2	7	12	22	13	12	68
	2.9	10.3	17.7	32.3	19.1	17.7	100
佑洞	4	4	14	28	30	30	110
	3.6	3.6	12.7	25.5	27.3	27.3	100
左洞	-	9	18	20	23	11	81
	0	11.1	22.2	24.7	28.4	13.6	100
中洞	6	9	29	32	32	25	133
	4.5	6.8	21.8	24.1	24.1	18.7	100
합	12	29	73	102	98	78	392
	3.1	7.4	18.6	26.0	25.0	19.9	100

먼저 동하면 392명의 호주 연령을 분석해 보았다. 평균적으로 40대에서 가장 높았고 4개 지역 모두가 40~5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 두 연령대 호주가 전체 호주 연령의 50%를 넘고 있었다. 1903년 한성부 호주 연령이 평균적으로 30~40대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과 비교했을 때, 동하면 호주 평균 연령이 도시 지역 호주 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호주의 연령별 특성을 좀 더 부연하면 동하면 20~30대 호주 연령이 당시 도시 지역 20~30대 호주에 비해서 낮게 나타났지만 40대 이후 연령에선 높게 나타났으며 10대 호주 비율도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 호주 연령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10대 호주 연령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점 그리고 40대 이후 호주 연령대가 높았다는 사실은 당시 농촌 지역 호주들의 연령 특성과 유사성을

가지고 있었다.

<표 3> 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주 직업

지역	호주 직업							
	農民	士民	商民	工民	船民·漁民	前進士	기타	합
栽松洞	42	21	-	-	-	-	5	68
	61.8	30.9	-	-	-	-	7.3	100
佑洞	79	22	4	1	-	1	3	110
	71.8	20.0	3.6	0.9	-	0.9	2.8	100
左洞	49	18	8	1	-	-	5	81
	60.5	22.2	9.9	1.2	-	-	6.2	100
中洞	84	38	4	-	2	-	5	133
	63.2	28.6	3.0	-	1.5	-	3.7	100
합	254	99	16	2	2	1	18	392
%	64.8	25.3	4.1	0.5	0.5	0.2	4.6	100

비고) 기타는 직업이 미기재인 여성 호주임.

392호에 기재된 동하면 호주의 직업은 7개 항목으로 구분되는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인 직업은 농민이며 64.8%로 나타났고, 우등에서 자신의 직업을 농민으로 기재한 호주는 71.8%로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았다. 농민 다음으로 사민이 25.3%로 나타나는데, 사민은 직업으로 적당한 용어가 아니었기에 사민들의 직업적 내용과 성격을 파악하기에 분명하지 않다.¹³⁾ 추측컨대 사민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서 儒業을 우선적으로 하여 농업을 병행했던 자들로 추정된다.¹⁴⁾ 사민 다음으로 상민이 4.1%이며 이후 공민, (선)어민, 전진사, 기타 순으로 나타났다.¹⁵⁾

13) 이훈상·민선희는 동하면 호주 직업을 분석하는 과정에서 사민에 대해서 ‘형제 중 한 명은 농민으로, 한 명은 사민으로 표기하는 등 신분 범주를 설정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라고 서술하였다(이훈상·민선희, 앞의 논문, 1995, 303쪽).

14) 동하면 호적에서 士民은 다른 직업 계층에 비해서 기구·고용인과 가택규모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이들이 어느 정도 경제적 능력을 갖춘 이들이었으며, 儒業을 겸하여 농업 같은 생산 활동에 참여했던 이들로 추측 가능케 한다.

동하면 4개 지역 호주의 직업을 분석해 보면, 4개 지역에서 직업적 유사성이 나타나고 있었으며, 상업 종사자와 관료들이 중심 직업군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도시 지역과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다. 즉 직업을 통해서 보았을 때, 당시 동하면 전체 지역은 농민 중심의 인적 구성을 보이고 있었으며, 전형적인 농촌지역에 비해서 상민과 공민 그리고 (선)어민 등의 직업 종사자가 나타났었지만 동래부 중심지에서 벗어나 농업 위주의 주변지역으로 파악된다.

동하면 4개 지역 호주의 직업이 대부분 농업 등 지역에 속박된 직업으로 나타나고 있었던 점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해당 지역에서 활발한 인구 이동이 나타나지 않았던 원인이 되었으며, 직업에 따른 지역적 폐쇄성이 나타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표 4>1908년 동래부 동하면 호주의 성·본관

지역	호주별 姓·本貫 분포					합
栽松洞	金海金	羅州鄭	晉州姜	梁山李	金海許	39(57.4)
	15(22.0)	10(14.7)	5(7.4)	5(7.4)	4(5.9)	
佑洞	金海金	江陵金	金寧金	月城崔	月城李	82(74.5)
	51(46.4)	9(8.2)	8(7.3)	7(6.3)	7(6.3)	
左洞	金海金	礪山宋	淸道金	盆城金	潭陽田	47(58.1)
	26(32.1)	6(7.4)	5(6.2)	5(6.2)	5(6.2)	
中洞	金海金	仁同張	密陽朴	慶州李	東萊鄭	84(63.2)
	25(18.8)	21(15.8)	19(14.3)	12(9.0)	7(5.3)	

15) 1910년 민적통계표에 수록된 동하면의 직업분포는 아래와 같다. 본문의 1908년 호주 직업과 비교했을 때, 직업항목에 25.3%인 사민이 없어지고 농업 종사자가 24% 증가하였다. 단순 비교를 하기엔 문제가 있지만, 앞서 사민이 유업을 병행하여 농업 같은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계층이었다는 것을 추측케 하는 부분이다.

농업	상업	어업	공업	일가	무직	합(%)
373(88.8)	5(1.2)	30(7.1)	4(1.0)	5(1.2)	3(0.7)	420(100)

* 상기의 표는 진상원의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항도부산』34, 2017, 269쪽)에 서술된 <표 4>민적통계표(1910년)에 수록된 동래부의 면별 직업 분포를 재편집한 것임.

비고) ()는 백분율 수치임.

특정 가문의 지역적 토착성 여부를 살펴보기 위해서 호적에 기재된 성·본관을 살펴보았다. 동하면 4개 지역에 따라서 1~5순위별로 살펴보았을 때, 김해김씨 가문이 전체 지역에서 가장 많은 동일 성·본관 가문으로 나타났다. 김해김씨를 제외하면 동하면 전체 지역 내에서 특정 가문의 집단적 거주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전체 호주 392명 중에서 김해김씨를 성·본관으로 하는 호주는 117명으로 약 29.9%를 차지하고 있어 수적으로만 보았을 때, 동하면 지역에서 김해김씨가 집단적 거주를 형성 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집단적 거주가 동하면 지역에서 토착 집단으로 역할하고 있었던 상황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판단하기엔 확실치 않다. 이에 수적인 측면에서의 집단적 거주 현상 이외에 동하면에서 대표 성씨가문으로 실제 역할하고 있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살펴보았다. 당시 호적을 통해서 김해김씨 호주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을 추측 가능케 하는 것으로 그들의 직업과 가택 규모 내용이다. 먼저 직업면에서 지역 사회 지도층의 역할을 담당 가능케 할 수 있는 계층으로 사민을 생각할 수 있다. 전체 김해김씨는 사민의 25.3%를 차지했고, 이들의 경제적 능력을 가택 규모로 보았을 때, 5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한 호주는 37명이며 5칸 이상 가택을 소유한 전체 호주 대비 33.0%로 나타났다.

이들이 다른 가문에 비해서 직업으로 사민을 기재한 수치 그리고 5칸 이상의 가택소유자가 다소 많았다는 점은 확실하나, 동하면에서 이들의 사회적 지위와 경제적 능력이 다른 가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나타나진 않았다고 보여 진다. 결국 당시 호적을 통해서 보았을 때, 동하면 지역은 특정 가문의 집단적 거주는 나타나고 있었으나, 특정가문에 의한 지역적 토착성과 세력 형성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인다.¹⁶⁾

<표 5> 1908년 동래부 동하면 가택 규모

지역	가택 규모									합
	1칸	2칸	3칸	4칸	5칸	6칸	7칸	8칸	기타	
栽松洞	-	20	20	2	10	7	6	1	2	68
	61.8				35.3				2.9	100
佑洞	-	24	38	14	19	8	6	-	1	110
	69.1				30.0				0.9	100
左洞	1	28	24	11	11	5	1	-		81
	79.0				21.0					100
中洞	-	31	51	12	14	15	9	-	1	133
	70.7				28.5				0.8	100
합	1	103	133	39	54	35	22	1	4	392
%	70.4				28.6				1.0	100

비고) 기타는 가택 규모가 미기재인 호임.

앞서 동하면 4개 지역 호주 분석을 통해서, 당시 동하면은 동래부 중심지에서 벗어나 인구의 이동과 집중화가 나타나지 않았던 주변 지역이었으며, 특정 사회적 지배집단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농업 계층 중심의 지역이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측면을 당시 동하면 호주들의 경제적 능력과 관련하여 그들의 가택 유형과 가택 규모로써 다시 확인해 보았다.

먼저 가택 유형에선 4개 지역 392명 호주 모두가 己有 草家를 소유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당시 호적의 가택 유형 항목은 己有/借有 草家와 기유/차유 瓦家로 구분되어 있었다. 일반적으로 와가 소유자가 초가 소유자보다 경제적 능력이 높았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주로 도시적 성격이 강한 지역에선 와가 소유자가 높게 나타났고, 농촌지역은 대부분

16) 이훈상·민성희는 ‘東萊의 중심지와 인접한 동상면과 다르게 동하면은 향반 가문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며……사족들의 전형적인 세거지가 아니라 여러 성씨가 사는 민촌으로서의 성격이 두드러졌다’고 보았다(이훈상·민성희, 앞의 논문, 1995, 301~307쪽).

초가 소유자로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 전체 호주 가택에서 와가 소유자가 한 명도 없이 초가 소유자로만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은 앞서 살펴 보았듯이 동하면이 중심지역에서 벗어난 주변의 농촌 지역이었다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며, 또한 전체 호주들이 부의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들의 가택 규모를 살펴보면, 동하면 호주가 소유하고 있었던 가택 규모는 최소 2칸에서 최대 8칸 사이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도시 지역과 비교해 보았을 때, 한성부 지역 호주의 평균 가택 규모가 5~9칸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음에 비해서, 동하면 지역은 2~3칸 사이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동하면 호주가 소유했던 가택 규모는 매우 작게 나타나고 있었다. 한성부 호주의 가택이 4칸 이하에서 19.9% 그리고 5~9칸 사이에서 45.7%, 10칸 이상에서 34.2%로 나타나고 있었다는 점¹⁷⁾과 비교해서, 동하면 호주의 가택 규모는 4칸 이하에서 70.4%로 나타나고 있었으며 8칸 이상의 가택을 소유한 자는 1호로만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동하면은 당시 도시 지역과 같이 대규모의 가택을 소유한 이들이 존재하지 않았으며, 특정 호주들에 의한 부의 집중화 현상도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었다. 다만 호주의 가택 규모에서 보이는 경제적 차이점을 동하면 전체가 아니라 지역별로 구분해 보았을 때 특정 직업에 의한 부의 차이는 작게나마 존재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재송동을 들 수 있다. 재송동은 4칸 이하 가택 규모가 4개 지역 중에서 가장 적고, 5칸 이상의 가택 규모는 가장 큰 비율로 나타나고 있었는데, 그 이유가 재송동에 거주했던 주민 중에서 사민 집단의 가택 규모가 대부분 5칸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7) 김현진, 앞의 논문, 2015, 524쪽.

Ⅲ. 가족 분석

앞서 동하면 392명 호주의 분석을 통해서 동하면 거주민의 개인적 특성과 지역성을 살펴보았다. 이번에는 호적에 기재된 호주 내용과 동거친속 내용을 결합하여 호주 개인이 아닌 가족이라는 측면으로 동하면 거주민의 거주 양상과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려 한다. 그 과정에서 동하면 가족의 특성을 좀 더 뚜렷이 살펴보기 위해서 1898년 仁川港 沓洞·外洞 호적을 활용하여 해당 지역 거주 가족과 비교 분석을 시도하였다.

당시 인천 답동·외동 지역은 동하면 지역과 비교했을 때, 바다 인근 지역이라는 지리적 공통점과 호적에 기재된 호수 규모의 유사성을 갖고 있었으며, 당시 인천 답동·외동 지역이 상업을 중심으로 하여 도시로 진입하기 위한 초기 단계에 있었다는 점에서 농업 생산이 중심이었던 동하면과 지역적 차이가 함께 나타나고 있었다. 이에 지리적 유사성과 함께 주민 구성과 사회경제적 면에서 차이가 나타나고 있었던 두 지역의 가족 비교를 통해서, 앞서 살펴본 호주의 개인 특성이 가족 구성과 성격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었는지 살펴보았다.

<표 6> 1908년 동래부 동하면 가족 규모

지역	가족 규모										합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7인	8인	9인	10인~	
裁松洞	-	7	8	10	21	8	7	3	2	2	68
佑洞	2	12	14	28	23	18	7	4	2	-	110
左洞	5	9	21	20	14	9	3	-	-	-	81
中洞	4	8	25	46	26	13	6	2	2	1	133
합	11	36	68	104	84	48	23	9	6	3	392
%	2.8	9.2	17.4	26.5	21.4	12.2	5.9	2.3	1.5	0.8	100

비고) 각 호에 기재된 남녀 기구·고용 인원수는 제외함.

동하면 호주의 가족 규모를 살펴보면, 4인 가족이 26.5%로 가장 높았으며 그 이후로 21.4%인 5인 가족과 17.4%인 3인 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인천 답동·외동 지역민과 비교했을 때, 동하면은 인천 답동·외동 지역에 비해서 4인 이상의 가족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었으며 반대로 3인 이하 가족은 비교적 적게 나타나고 있었다.¹⁸⁾ 동하면 거주민의 가족 규모가 5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나게 된 이유는 각 호별 동거친속 인원수가 많았기 때문이다.

<표 7> 1908년 동래부 동하면 동거친속 유형

지역	동거친속 유형																		합	
	妻	子	女	婦	祖母	母	孫子	孫婦	孫女	弟	弟嫂	妹	姪	叔父	曾孫	從弟	妾	外孫		壻
裁	54	83	54	12	1	14	14	1	17	5	-	6	1	-	1		3	3		263
佑	91	122	81	25	-	21	22	-	13	8	3	2	1	-	-	1	-	-	1	390
左	73	69	38	12	-	16	8	-	3	9	-	1	-	-	-	-	-	-	1	229
中	106	150	59	34	2	38	15	-	19	10	2	3		1	-		1	-	-	440
합	324	424	232	83	3	89	59	1	52	32	5	12	2	1	1	1	4	3	2	1,322
%	24.5	32.0	17.5	6.3	0.2	6.7	4.5	-	3.9	2.4	0.4	0.9	0.1	-	-	-	0.3	0.2	0.1	100

호주 392명의 각 호에 기재된 동거친속을 분류해 보았을 때, 동하면 가족의 동거친속은 전체 19개의 유형으로 구분되었고, 빈도 면에서 子(32.0%)-妻(24.5%)-女(17.5%)-母(6.7%)-婦(6.3%)-孫子(4.5%)-孫女(3.9%) 등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당시 인천 답동·외동 가족의 동거친속 유형은 동하면 보다 많은 32개로 나타났으며, 동거친속의 유형별 순위는 妻

18) 1898년 인천항 답동·외동에 거주했던 409명 호주의 가족 규모는 전체적으로 3인 가족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2~4인 가족이 가장 보편적인 규모이었다. 지역별로 분석했을 때, 답동은 2·3인이 가장 높으며, 2·3인 가족이 전체의 56.5%로 나타났다. 그리고 외동은 3·4인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4인 가족이 전체의 54.7%이었다. 두 지역에서 5인 이상 가족은 답동이 15.8%로, 외동은 29.3%로 나타났다(김현진, 앞의 논문, 2014, 59~60쪽).

(34.0%) - 子(27.2%) - 女(13.6%) - 母(7.0%) - 弟(4.8%) - 婦(4.3%) - 妹(1.0%) 등으로 나타나고 있었다.¹⁹⁾ 동하면의 동거친속과 비교해서 동거친속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났으며 또한 직계 이외에 방계 인척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다시 말해서 동하면에 거주했던 가족들은 동거했던 친속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호주·자·녀·손자·손녀 중심의 직계 가족에서만 한정되어 다수 나타났다. 앞선 가족 규모에서 5인 이상이 높게 나타난 주요 원인은 직계 가족구성원에서 손자와 손녀 비율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결국 동하면은 호주의 동거친속을 통해서 그들 가족 성격을 살펴보았을 때, 동거친속 유형의 제한적 측면 그리고 직계중심의 가족 구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측면은 당시 동하면과 인천의 답동·외동이 바다에 인접한 지리적 공통점을 보이고 있었으나, 인천 답동·외동은 상업도시로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주민 구성이 도시적 특징으로 재편성되어가는 모습을 보였고, 동하면은 농업 생산 중심의 지역적 특성 속에서 거주민의 집단적 구성이 전형적인 농촌 가족 구성으로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동하면 가족의 동거친속 유형에서 나타나는 다른 특징으로 호주 女에 대한 기재이다. 앞서 서술했듯이 동하면 호적은 호주 女에 대한 기재가 비교적 충실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 호적의 동거친속에서 호주의 子가 424명 기재되었는데 호주의 女는 232명이 기재되었다. 남녀의 비율로 보았을 때, 대체로 호주 女가 누락 없이 기재되었다고 보여진다. 당시 다른 지역 호적에서 대부분 생략되었던 女의 연령뿐만 아니라, 女의 이름도 牙只로 통일해서 전체 기재되어 있었다.²⁰⁾

19) 김현진, 앞의 논문, 2014, 58쪽.

20) 동하면 호적 동거친속에서 호주 女의 이름이 전체 牙只로 기재되었는데, 해당 女의 나이가 2세~32세까지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 호적 동거친속에서 여성의 이름을 분석해 보면, 기혼여성인 경우엔 ○氏로 기재하고, 미혼여성인 경우엔 ○牙只 라고

현재로써 이런 사실에 대한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다만 추론해 보면, 동래부 전체에서 나타난 호적기재의 관행이거나 아니면 동하면 지역의 특성과 관련하여 여성에 대한 해당 지역의 인식 문제로 볼 수 있는데, 전자의 경우는 당시 동래부 호적이 현재 동하면만 남아 있기에 그 내용을 살펴보기 어렵고, 후자의 경우엔 그 내용을 확인 접근할 수 있는 관련 자료가 용이하지 않은 상황이다.

다음으로 호주의 가족 개념과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서 동거친속의 기재순위 내용을 분석하였다. 당시 호적 작성은 호주의 자필 혹은 구술을 통해서 대필 되었다는 점에서 동거친속의 기재순위는 가족에 대한 호주의 입장과 관념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8> 1908년 동래부 동하면 동거친속 기재순위

지역	동거친속 기재순위				합
	남성 우선	연령 우선	친족 우선	가족 우선	
栽松洞	25	-	1	1	27
佑洞	17	1	5	4	27
左洞	11	-	1	1	13
中洞	17	2	3	-	22
합	70	3	10	6	89
%	78.6	3.4	11.2	6.8	100

비고) 재송동 1호와 좌동 1호의 동거친속에서 남성우선과 친족우선 기재가 동시에 나타난 사례가 있었는데 남성 우선 기재에 포함시킴.

동거친속의 기재순위 유형은 크게 5가지 유형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첫째, 남성 우선 순위로 나이 많은 女·孫女보다 나이 적은 子·孫子を 먼저 기재한 경우, 둘째 연령 우선 순위로 女·孫女の 나이가 子·孫子보다 높을 경우에 女·孫女를 먼저 기재한 경우, 셋째 친속 우선 순

기재한 것으로 보인다.

위로 자녀보다 향렬과 나이 높은 친속을 먼저 기재한 경우, 넷째 가족 우선 순위로 호주가 향렬과 나이 높은 친속보다 자신의 자녀를 먼저 기재한 경우이다. 392호 중에서 상기의 우선 기재 유형 조건에 해당되는 사례는 89호로 나타났다.

89호를 4가지 우선 기재순위에 따라 구분해 보았을 때, 남성 우선 기재(78.6%)가 압도적으로 높았으며, 이후 친족 우선 기재(11.2%)-가족 우선 기재(6.8%)-연령 우선 기재(3.4%) 순으로 나타났다. 당시 도시 지역과 비교했을 때, 한성부의 동거친속 기재 순위는 친족 우선 기재(39.3%)-남성 우선 기재(29.6%)-연령 우선 기재(22.0%)-가족 우선 기재(9.1%)로 나타나고 있었다.²¹⁾ 한성부 지역도 동하면과 마찬가지로 동거친속 기재 순위가 남성과 친족 우선 기재에서 높게 나타났지만, 동하면에 비하면 압도적인 수치는 아니었다. 결국 동하면 호주들은 남성과 친족을 중시하는 부계중심의 전통적인 가족 관계 속에서 가족을 정의·인식한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동하면 지역의 가족 분석과 관련하여 당시의 가족 유형을 살펴보았다. 핵가족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확대가족이 43.9% 그리고 독신이 3.0%로 나타났다. 가족 유형별 비율을 인천 답동·외동 지역과 비교해 보면, 인천 답동·외동 거주 가족은 핵가족이 60.6%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그 다음 확대가족 33.3%와 독신 5.1% 그리고 기타 1.0%로²²⁾ 나타났다. 동하면 지역 가족 유형이 인천 답동·외동 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반대로 핵가족과 독신에서 낮게 나타나고 있었다.

21) 김현진,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光武 7년 漢城府 호적을 중심으로-』, 『향토서술』 91, 2015, 174~175쪽.

22) 김현진, 앞의 논문, 2014, 61쪽.

<표 9> 1908년 동래부 동하면 가족 유형

지역	가족 유형									합
	독신			핵가족			확대가족			
	남	녀	합	호주+처	부부+미혼자녀	합	직계	비직계	합	
栽松洞	1	-	1	4	35(2)	39	20(1)	8	28	68
	1.4	-	1.4	5.9	51.5	57.4	29.4	11.8	41.2	100
佑洞	-	2	2	7	53	60	35	13	48	110
	-	1.8	1.8	6.4	48.2	54.6	31.8	11.8	43.6	100
左洞	1	4	5	9	39	48	21	7	28	81
	1.2	4.9	6.1	11.1	48.2	59.3	25.9	8.7	34.6	100
中洞	-	4	4	5(1)	56	61	54	14	68	133
	-	3.0	3.0	3.8	42.1	45.9	40.6	10.5	51.1	100
합	2	10	12	25	183	208	130	42	172	392
%	0.5	2.5	3.0	6.4	46.7	53.1	33.2	10.7	43.9	100

비고) ()은 첨이 포함된 호임.

이밖에 동하면 가족 유형에서 나타나는 특징으로, 핵가족에서 호주+처 유형은 다소 낮게 나타났고 부부+미혼자녀의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던 점 그리고 확대가족에서 비직계 유형이 직계보다 낮게 나타난 점이다.

이러한 동하면의 가족 특성은 앞서 살펴본 동하면의 가족 규모 그리고 동거친속 유형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었다. 앞서 동하면 가족 규모가 인천 답동·외동 지역에 비해서 4인 이상에서 높게 나타났던 점은 동하면의 핵가족이 호주+처의 부부 중심 유형보다 4~5인의 부부+미혼자녀 유형에서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었다.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동하면 가족의 동거친속 종류가 인천향 답동·외동 가족에 비해서 다양하게 나타나지 않았던 점은 가족 유형에서 비직계 가족 비율이 적게 나타나는 원인이 되었다.

마지막으로 동하면 가족 유형에서 나타났던 지역적 차이인데, 4개 지

역 중에서 중동 지역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핵가족 비율은 가장 낮았으며 상대적으로 확대가족은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 유형은 지역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며 거주자와 지역의 특성이 반영된 결과로 나타난다. 예를 들어서 당시 한성부 지역에서 한성부 성내 지역 가족 유형은 성외 지역보다 핵가족에서 낮은 수치로 나타났고 확대가족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그 이유는 당시 한성부 성내 지역에 다수 거주했던 관료와 유업 계층에서 확대가족이 높게 나타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점은 성내 지역이 성외 지역보다 관료와 儒業 계층을 중심으로 부계혈연의 인적관계가 강했던 가족을 구성했기 때문이었다.²³⁾ 이와 관련해서 중동이 다른 세 지역에 비해서 핵가족보다 확대가족에서 높게 나타나게 된 원인은 중동에 거주했던 호주 중에서 사민이 동하면 전체 99명중에서 38명으로 약 39%나 거주했기 때문이며, 이들만을 대상으로 가족 유형을 분석했을 때, 핵가족 34.2% 그리고 확대가족은 65.8%로 나타나 중동에 거주했던 사민 계층이 해당 지역의 전체 가족 유형과 특징에 영향을 주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IV. 맺음말

본 연구는 현재 해운대구 지역과 주민 정체성에 대한 변화 과정을 과거 거주민의 존재양상과 특성으로 살펴보려는 목적을 가지고, 1908년 동래부 동하면(중동·좌동·우동·재송동) 호적에 기재된 392명의 정보를 지역별·내용별로 통계 분석하였다. 그리고 분석 결과를 당시 동래부 동하면의 지역적 특성 그리고 거주민의 일상적 삶과 집단적 생활

23) 김현진,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 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7, 595~597쪽.

방식 등으로 이해하였다.

첫째, 호적에 기재된 호의 구성을 통해서 보았을 때, 동하면 호의 구성은 도시 지역에서 다수 발생하였던 곁호와 가호 그리고 반 칸 가택이 나타나지 않는 등, 당시 동하면은 인구가동과 집중화 현상이 나타났던 상업·도시 지역에서 벗어나 주변 지역에 머물러 있었던 특성을 보이고 있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은 동하면 지역에 거주했던 주민들의 생활 방식 그리고 존재양상에 커다란 영향을 주고 있었다.

둘째, 호주의 사회·경제적 성격과 특성을 그들의 연령, 직업, 성·본관 그리고 가택 규모 등을 통해서 살펴보았다. 당시 동하면에 거주했던 호주들은 평균적으로 40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동하면 4개 지역 모두가 40대 이후 연령에서 수치가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동하면 거주자들은 대부분 농업을 주요 직업으로 하여, 사민, 상민 공민, 어민 등에 종사하고 있었다. 당시 도시 지역 거주자들의 직업과 비교해 보았을 때, 관료 계층이 제외되어 있었으며, 지역 내에서 직업을 통해서 주요 사회 계층이 형성되지 않았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다. 동하면 호주의 성·본관을 분석해 보았을 때, 당시 동하면 내에서 특정 가문에 의한 집단적 거주 사실은 확인되었으나, 이들이 동하면 지역에서 토착화되어 뚜렷한 사회·경제적 세력으로 나타났던 모습은 찾아 볼 수 없었다. 가택 규모에서 동하면 전체 주민들은 와가 없이 초가만을 소유하고 있었으며, 이들이 소유했던 초가는 2~3칸 규모로 나타나고 있었다.

당시 호적을 통해서 동하면 거주민의 사회·경제적 측면을 살펴보았을 때, 4개 지역 전체 주민들은 특정 개인이나 집단에 의한 부의 차이가 없이 공통적으로 유사한 사회·경제적 상황 속에서 생활하였으며, 이러한 삶의 동질성은 그 당시 동하면 거주민의 공동체 의식과 집단적 정체성에 영향을 주었다고 추측된다.

셋째, 동하면 392명 호주의 분석 결과를 동거친속 내용과 결합하여 호주 개인이 아닌 가족으로 재구성함으로써 동하면 거주민의 거주 양상과 특성을 살펴보았다. 당시 동하면에 거주했던 가족은 4인 가족이 가장 전형적인 가족 규모로 나타났으며, 5인 이상의 가족에서 높게 나타나고 있었다. 가족의 구성원은 자-처-녀-모-부-손자-손녀 등 당시 도시 지역에 비해서 동거친속 유형이 적게 나타나는 제한성과 직계가족 중심의 가족구성을 보이는 다소 폐쇄적인 가족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동거친속의 기재순위를 통해서 보았을 때, 당시 동하면 가족은 남성과 친족을 중시하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었다. 이러한 점은 동하면의 가족 유형이 부부+미혼자녀 그리고 직계 확대가족에서 높게 나타났던 현상과 관련되었으며, 당시 동하면의 가족은 부계중심의 전통적 가족관계가 강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다.

필자는 현재 해운대구 지역과 주민의 정체성에 대한 변화과정을 살펴보기 위해서, 그 첫 단계의 시작으로 1908년 동하면(현재 해운대 지역)의 거주민 양상을 당시 호적을 통해서 살펴보려 하였다. 그 결과 당시 동하면 거주민과 현재 해운대 거주민 양상은 커다란 차이를 보이며, 거주 양상에서 관련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대해서 필자는 1908년 동하면의 거주민과 현재 지역민의 상관관계를 현재 기준으로 과거 사실에서 지역적 공통점을 찾는 것이 아니라, 시기별 변화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는 그 첫 단계로서 1908년 동하면 거주민 양상만을 다루었으며, 이후 시대별 변화 과정을 함께 살펴보지 못하였다.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추후 연구를 통해서 보완되길 바란다.

| 참고문헌 |

隆熙二年東萊府東下面戶籍.

光武三年安東郡南先面戶籍.

官報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市史』1·3, 1989·1991.

釜山廣域市史編纂委員會, 『釜山地名總覽』3, 1997.

김현진, 「19세기말 仁川港 거주민 양상과 대민통치방식-光武 2년(1898) 仁川港 沓洞·外洞을 중심으로-」, 『인천학연구』 20, 2014.

_____, 「1903년 漢城府民의 거주지 이동에 나타나는 근대 공간의 집중과 분화-光武 7년 漢城府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37, 2015.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과 兒童 인식의 패러다임-光武 7년 漢城府 호적을 중심으로-」, 『향토서술』 91, 2015.

_____, 「1900년대 近代 都市의 주변과 거주민의 삶-光武 7년(1903) 漢城府 城外戶籍을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44, 2017.

_____, 「근대 초기 도시가족 구성에서 보이는 여성의 존재와 경계-光武 7년 漢城府戶籍에 기재된 여성호주를 중심으로-」, 『한국학연구』 50, 2018.

이훈상, 민선희, 「19세기 東萊府 東下面 못골의 東萊 鄭氏와 이들의 고문서」, 『港都釜山』 12, 1995.

장경준, 「18~20세기 초 동래지역의 인구조와 주거양태」, 『역사와 세계』 37, 2010.

진상원, 「19세기 동래부 사상면 호적중초의 내용과 사상면 지역사회의 성격」, 『港都釜山』 34, 2017.

투고일 : 2018. 06. 11. 심사완료일 : 2018. 07. 05. 게재확정일 : 2018. 07. 18.

| Abstract |

A Study on the Routine Lives and Collective Identity of
Residents in Dongha-myeon, Dongraebu in 1908
— Focusing on family register of Donghae-myeon, Dongraebu
during Yung-Hee(隆熙) 2nd year —

Kim, Hyon-Jin

In this study, we conducted a statistical analysis of the details pertaining to family registers of 392 persons in Donghae-myeon, Dongraebu in 1908 and examined the regional characteristics of myeon, Dongraebu, and collective lifestyles of the residents based on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that, we investigated into the community identity of local residents and patterns of their lifestyles in myeon, Dongraebu.

At that time, Donghae-myeon, Dongraebu exhibited the characteristics of neighboring regions that did not witness active population relocation and concentration. Such regional characteristics influenced the residential characteristics of residents and their mode of lives and were revealed clearly particularly in the population aged 40 or older on average among residents of Dongha-myeon. Most residents were engaged in farming as occupation and most families were indigenous and did not emerge as a clear ruling power. From the standpoint of economics, they owned thatched houses, each consisting of 2 to 3 rooms and no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was found among residents, suggesting that they led similar level of social and economic lives.

Following that, we looked into the residential patterns of residents in Donghae-myeon, Dongraebu from a more multi-faceted approach by

combining the details of family registers with details of co-habiting relatives into families. Most typical form of families in Donghae-myeon, Dongraebu was the family comprised of 4 persons, while the ratio of families, each consisting of 5 or more persons, were relatively higher. Their family structure showed the constraints that limited the number of cohabiting relatives to low level and the closed characteristics centered around lineal family type. Such aspect highlights the tendency that traditional patrilineal family relationship was emphasized in Dongha-myeon at that time.

Key words: Yung-Hee(隆熙) 2nd year(1908) · family register · Donghae-myeon, Dongraebu · head of household · family